

We

“창조적 난장판”을 꿈꾸며.....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들을 뽐어내고, 역동적 수렴의 과정을 거치며, Carrotian으로서 정체성(identity)과 자존감(Self-esteem)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다.”

지난 한달 이상 광우병 괴담으로 야기된 촛불 집회로 온 나라가 들쭉거리고 있다.
새로 출범한 정부는 100일이 채 안되어 심판대에 오르고 만 것이다.
나는 그 속에서 여느 때와 다른 아주 재미있는 현상들을 발견한다.
그것은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인터넷/모바일)을 장악한 10대들의 새로운 파워(Power)와 행동표출 양식이다.
그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환경에 적응하며 디지털 시대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
이것은 인류가 진화하고 있는 한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Power Shift).

인터넷은 그들이 숨쉬며 호흡하는 생활공간이다.
여러 정서들이 역동적으로 교감하며 시공을 초월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고 확인한다.
하나의 글에 수백, 수천 개의 댓글을 달아 대며 그것을 즐기는 공간이다.
흑자들은 과도한 표현들과 검증되지 않은 극단적인 오피니언들이 존재하는 그곳을 “난장판”이라 부르기도 한다.
나는 그 결과를 염려하지 않는다.
반드시 수렴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통계이론에 극단 값은 시간을 축으로 반드시 “평균 회귀”한다는 이론이 있다.
그들의 난장판은 다양성과, 역동성이 넘치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회적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다.
나는 이를 “창조적 난장판”이라 부르고 싶다.

당근에도 이런 “창조적 난장판”을 펼쳐보자.
당근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임직원, 강사, 고객, 그리고 주주들까지)이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들을 뽐어내고,
역동적 수렴의 과정을 거치며, Carrotian으로서 정체성(identity)과 자존감(Self-esteem)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그 속에 이해와 신뢰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더해질 때
우리가 꿈꾸는 사회적 가치(Societal-value)도 자연스럽게 같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

Written by 대표이사 노상충 (James Roh)

